

# 광주시교육청 맞춤형 진학교육 '만족'

### 진학지원센터·대입 프로그램 운영 학교박청소년·다문화학생 등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진행했던 맞춤형 진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해당 진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 및 학부모 5275명을 대상으로 웹을 통해 진행했다. 5점 척도로 이뤄졌던 이번 조사에서 각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빛고를 진학 플랫폼(96.5%), 수시모집 집중상담(91.1%), 정시모집 집중상담(95.9%), 화상상담(96.3%),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96.6%),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95.4%), 토요 1대1 대입상담(94.3%), 대입전문다독어 양성배치(93.8%)로 매우 높았다.

시교육청은 올해 365일 24시간 학생 맞춤형 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

를 위해 광주진학지원센터 운영,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 다양한 대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입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네 방향으로 펼쳐나간다.

우선 광주진학지원센터를 통해 진학지도 자료집 '빛고를 진학대로', 최근 100만 건 이상의 합격·불합격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빛고를 진학 올리고' 2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누리집 개선 등을 실시한다.

학생맞춤형 진학지도 지원을 위해 130여 명의 규모의 광주진로진학지원단 구성 운영, 광주형 수능 모의 평가 '광주 최종 완성' 8, 9월 개발·보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책자 보급 및 설명회,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진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 특수교육학생,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대입 설명회와 면접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광주 진로진학박람회와 금·토요일로 행사 일정 변경 등을 통해 참여 학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또 상시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 '빛고를 진학 꿈트리'를 비롯한 24시간 진로진학서비스 확대, 멘토-멘티 학습, 토의·토론학습, 온라인 학습 등 365-스터디룸과 연계한 학습모델 지원 등을 운영한다.

대입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활발히 전개 나간다. 대학에서 실제 대학입시 평가를 담당했던 대학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을 중심으로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빛고를 진학 플랫폼', 맞춤형 대입지원관 특강 운영과 일반고 각 현장에서는 작년에 양성·배치된 대입 전문 디렉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및 대입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발표된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와 엮여가는 우려가 있다"며 "시교육청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 정책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최신의 입시정보와 상담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조선대-상무대, 군사학 분야 교육·연구 협력

### 보병·포병·기계화·공병·화생방 등 5개 분야...우수 인력양성 협력



조선대학교와 상무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최근 장성군 삼서면에 위치한 육군 군사 교육시설인 상무대의 보병, 포병, 기계화, 공병, 화생방 등 5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교관역량을 증진하고 미래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조선대 김춘성 총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김법현 군사학과장 등과 상무대 5개 학교 학교장을 비롯한 부대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군사학 분야에서 교육, 연구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교관 역량강화 증진과 학술 자문 및 협력 ▲미래 전투발전을 위한 전투발전 세미나 추진과 자문 및 협력 ▲기타 군사학

분야 전투발전 및 기술의 진흥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상무대 5개 학교는 지금까지 조선대에서 개최하는 학술 및 전투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장병과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도모하는 등 공동협력과 상호교류를 이어나온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춘성 총장은 "대학의 교육커리큘럼과 역할이 지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무대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상무대와 손잡고 지역 안에 전공을 놀라게 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광주대 총동창회 신년 인사회...대학 비전·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논의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광주시 동구 금수장호텔에서 2024년 총동창회(회장 송영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김동진 총장, 송영길 동창회장, 김윤세 호남직업학교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갑진년 새해 덕담을 나누고 대학 비전과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김동진 총장은 "개교 44주년을 맞은 광주대학교가 지역 사립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동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면서 "가수 BTS, 영화감독 봉준호가 있기 전 수많은 선배들의 숨겨진 실패 경험과 도전 역사가 커져가 쌓였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K 콘텐츠가 세계의 주류로 각광받는 것처럼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가는 한걸음



한 발자국이 후배들의 미래와 광주대 발전에 큰 징검다리라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영길 총동창회장은 "동문 기업과 재학생 연계,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연결고리 역할 등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동신대 나주체력인증센터 만족도 평가 전국 1위



동신대학교 나주체력인증센터(총장 이주희·사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도 국민체육100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조사에서 전국 75개 센터 중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동신대 나주체력인증센터는 종합 만족도 95.0점을 받아 전국 평균 91.0점보다 4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 처리 97.3점, 프로그램과 장비 96.1점, 체력증진교실 95.0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나주체력인증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매년 1만2000건 이상의 체력 측정·평가, 맞춤형 운

동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혈관계 질환자, 암 생존자들의 체력과 삶의 질 향상 ▲노르딕워킹을 활용한 근감소증 개선 등 다양한 운동처방을 적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만성질환 위험군, 비만 등 건강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건강체력증진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종철 나주체력인증센터장(운동처방학과 교수)은 "수도권과 광역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적은 나주에서 1위에 선정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생활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 학교 노후 화장실, 친환경·창의 공간으로 남부대 높은 취업률 74% 달성

### 11개교 증·개축 리모델링

전남지역 학교 노후 화장실이 친환경·창의의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선진형 학교 화장실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11개교 대상이다. '다 담은 화장실'이라는 주제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화장실 공간조성이 목표다. 사업은 작은 학교를 포함, 증·개축(4개교)과 리모델링(7개교)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선진형 화장실은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 사용자 참여 디자인으로 설계한다.

오는 3월 '다 담은 화장실 공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까지 의견을 모은다. 2025년 시설 공

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장실은 자연채광을 받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식물·향도 등 친환경 공법을 활용해 설계한다. 학생들의 체력 변화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환기장치와 난방 시스템을 갖춰 언제나 쾌적한 화장실 유지가 가능하도록 꾸민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3개년(2025-2027년) 동안 33개교에 245억원을 투자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선진형 화장실 구축 사업은 단순히 화장실 공간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가족의 위생 건강은 물론 기후 위기 극복을 실천하는 생태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남부대학교(총장 서범석)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23년 1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74.0%로 광주지역 4년제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부대학교의 최근 3년(2020년-2022년) 평균 취업률은 71%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취업률(74.0%)은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66.3%)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남부대는 학생 전주기 성장형 취·창업 경력개발 통합관리시스템인 'NB SCAUT' 체계를 갖춰 윈스톰으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투자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서범석 총장은 "내실있는 교육을 기반으로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서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